

## 317야드 이상 NO!...골프공 성능 제한한다

세계 골프 규칙 관장하는 두 단체  
“3년 이내 프로 대회에만 새 규정”  
선수들·볼 제조업체 반발 가능성  
PGA “독립적인 검토할 것” 시큰둥



영국왕립골프협회(R&A)와 미국골프협회(USGA)가 폭증한 프로 선수들의 비거리를 낮추기 위해 장기적으로 골프공 성능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선수들과 골프공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도 당장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새 조치가 자리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2022~2023 PGA 투어 장타 1위에 올라 있는 로리 매킬로이. AP뉴시스

드라이버 등 클럽과 공의 기술력이 나날이 좋아지면서 필드에서 프로는 물론 아마추어도 손쉽게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선 비거리 300야드가 훌쩍 넘는 장타자가 즐비하고, 메이저대회에서도 언더파 선수가 속출하는 것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22~2023시즌 PGA 투어 장타 1위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327야드에 이른다. 세계랭킹 3위 매킬로이는 ‘더 멀리 보내면 타수를 줄이기 더 쉬워진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프로 골프 대회에서 350야드 이상 날아가는 초장타를 치는 선수를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세계 골프 규칙을 관장하는 영국왕립골프협회(R&A)와 미국골프협회(USGA)는 15일(한국시간) 늘어나는 비거리를 억제하기 위해 프로 대회에서 선수들이 사용하는 골프공 성능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골프공을 시속 127마일(약 204.4km)의 스윙 스피드로 때렸을 때 비거리가 317야드 이상 날아가지 않도록 3년 안에 규정을 바꾸겠다는 내용

이 담겨있다. 다만 이 규정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에서만 적용된다.

두 단체는 3년 전 공동 조사를 통해 프로 선수들의 비거리가 폭증하는 건 ‘골프에 해롭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드라이버 거리가 늘어나면서 통아 이언을 쓸 일이 거의 없어 골프가 ‘드라이버~피칭~퍼터’로 바뀌며 골프 본질이 훼손되고, 장기적으로 골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2003년 PGA 투어 선수 평균 비거리는 286야드에 불과했고, 300야드를 넘긴 선수는 9명뿐이었지만 올해는 평균

비거리가 297.2야드에 이르고 무려 83명이 평균 300야드 이상을 친다.

R&A와 USGA는 골프공 성능 제한에 앞서 드라이버 길이를 46인치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대로 골프공 성능이 제한되면 PGA 투어 정상급 선수들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15야드 안팎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단체 계획대로 골프공 성능 제한이 세계 각 투어에 정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선수들은 당연히 반대 입장을 내비칠 것이고, 새로운 골프 볼 개발에 많은 비

용과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볼 제조업체들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PGA 투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PGA 투어는 “이 사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독립적인 검토를 하겠다”면서 “투어, 선수 또는 팬들이 우리 경기를 즐기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골프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지극히 ‘의례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R&A와 USGA가 쏘아올린 골프공 성능 제한이란 화두는 당분간 골프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금강주택 골프단, 신용구 등 4명 신규 영입

금강주택 프로골프단이 15일 서울 강남구 금강주택 본사에서 신용구, 최영준, 김경민, 한태현 등 신규 선수 4명의 입단식을 열었다. 신용구는 지난해 8월 우성종합건설 오픈에서 우승하는 등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에서 20개 대회에 출전해 4차례 톱10에 들며 상금랭킹 13위(3억3807만원)에 오른 선수다.

최영준은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KPGA 2부 스킨투어를 거쳐 이번 시즌 코리안투어에 데뷔한다.

김경민과 한태현은 금강주택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 시안장학회의 ‘골프인재 장학생’ 출신으로 이번 시즌 스킨투어에서 뛴다. 금강주택 프로골프단은 기존 옥태훈, 허인회, 최호성, 김승혁을 포함해 이번 시즌 8명의 선수가 활약하게 된다.

## 하이원리조트 후원 프로골프 선수 공개모집

강원랜드가 하이원리조트 후원 프로골프 선수를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한국프로골프(KPGA) 2부 대회 및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부 대회 출전 경력의 선수다.

선발 예정 인원은 강원 폐광지역 출신 남녀 각 1명, 강원지역 출신 남녀 각 2명 등 총 6명이고,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서류전형과 실기테스트를 거쳐 최종 선발하며, 실기테스트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선수를 대상으로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18홀 1라운드 경기로 진행한다.

## 한화생명, LPGA 인터내셔널 크라운 직판 이벤트

한화생명이 5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국가대항전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를 ‘직판’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골프여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LIFEPLUS 트라이브 앱을 통해 2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23일 당첨자 1명을 발표한다. 당첨자에게는 왕복 항공권, 4박 5박, 파이널 라운드 관람 갤러리 티켓이 제공된다. 대회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PPC 하딩파크에서의 골프 라운드 혜택도 있다. 가족, 지인 등 동반자 1명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 대회는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 잉글랜드, 태국, 호주, 중국 등 8개국이 참가하는 국가대항전이다.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 샘 번스, PGA투어 12년 만에 ‘단일대회 3연패 도전’

‘발스와 챔피언십’ 오늘 개막  
통산 4승 중 2승 수확한 대회



샘 번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발스와 챔피언십’(총상금 810만 달러·106억 원)이 1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버의 이니스브룩 리조트 코퍼헤드 코스(파 71)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 주 열린 ‘제5의 메이저

대회’ 플레이 어스 챔피언십 (총상금 2500만 달러)과 다음주 열리는 ‘특급대회’ 월드골프 챔피언십(WGC) 텔 테크놀로지스 매치플레이(총상금 2000만 달러) 사이에 열려 정상급 선수들

이 많이 출전하지 않는다.

세계랭킹 톱10 중에선 10위인 저스틴 토마스(미국)가 유일하게 출전하고, 20위 이내로 시야를 넓혀도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13위), 조던 스피스(미국·14위), 샘 번스(미국·15위) 등 4명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주목할 선수는 번스. 2021년 이 대회에서 PGA 첫 승을 수확했던 번스는 지난해 연장에서 데이비스 라일리(미국)를 따돌리고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PGA

투어 통산 4승 중 2승을 이 대회에서 수확할 정도로 인연이 깊다. 만약 번스가 3연속 우승에 성공하면 2009~2011년 존 디어 클래식의 스티브 스트리커(미국) 이후 PGA 투어에서 12년 만에 단일 대회 3연패를 달성하는 영광을 안는다.

임성재, 김주형, 김시우 등 한국 간판선수들도 휴식을 택한 가운데 우리 선수 중에서는 안병훈, 이경훈, 김성현이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병훈은 직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공동 35위에 랭크됐고, 이경훈과 김성현은 컷 통과에 실패했다. 김도현 기자

40년 전통의 명품가구



큐수방®

황토침대 창고大방출 파격세일

품질은 그대로 가격은 공장이 파격 창고방출

유통, 대리점 과정없이 공장에서 직접 창고大방출 파격적인 가격에 한정판매



한쪽은 시원~ 한쪽은 뜨끈뜨끈~  
고급 조절기 좌우난방으로  
실속 분리난방



편백 소나무  
퀵(Q) 1500×2100×900mm 상급 1000×2100×900mm  
퀵(Q) 598,000원  
Model No. 204 싱글(S) 538,000원

창고大방출

★설치비 : 수도권 무료 (지방 50,000원 추가)

Model No. 307  
멀바우 카우치소파  
사이즈 2130×930×800mm  
530,000원



Model No. 303  
침착 편백 다용도평상  
사이즈 : 800×2000×380mm  
398,000원  
왕도불 선택시

다용도평상은  
침대 & 소파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Model No. 304  
침착서랍함 다용도 평상  
사이즈 2000×800×400mm  
439,000원 (편백, 침착)



큐수방

제조 및 매장 주소  
1703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파당로 36 (010-3000-2720)

문의전화 / 010-7703-2172

입금계좌 : 하나은행 260-910612-81707 (임상택, 비전애드)

각종 카드결제 가능